

근대 중국어 번역 학술어 생성 양상과 한국에 미친 영향*

허재영**

|| 차례 ||

- I. 서론
- II. 근대 중국에서의 역법(譯法)과 언어
- III. 『청의보』와 『신민총보』의 학술어 논쟁
- IV. 『신명사훈찬』의 신어(新語)
- V. 근대 한국의 학술어에 대한 태도
- VI.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근대 중국의 학술 번역어 생성과 수용 태도를 고찰함으로써 이 시기 한국의 학문 형성 과정에 나타난 다양한 번역 학술어의 수용 과정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우리나라의 근대 시기에는 중국에서 산출한 한자 학술어와 일본에서 산출한 한자 학술어가 다량으로 유입되었는데, 일본을 통한 지식 유입이 활발해지고 일본어의 세력이 급속히 확장되면서 일본식 학술어가 정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럼에도 한자 학술어가 일본식 한자어인지 아니면 중국식 한자어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근대 중국의 번역 학술어는 이미 존재하는 어휘소를 활용하여 조어하는 방식을 취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조어 원칙은 강남 제조총국의 『역서사략』, 일본 유학생 잡지인 『청의보』, 『신민총보』 등에 잘 나타난다. 이 용어 가운데 새로운 개념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일본에서 조어한 용어로 대체된 것들도 있다.

* 이 논문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 SIA5A2A03926486)

** 단국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일본연구소 소장, HK플러스 사업 연구 책임자

그럼에도 기존의 문헌을 검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용어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음은 주목할 현상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근대 한중일 삼국에서 생성되고 수용된 새로운 학술어를 전수 조사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일은 한국 학문 발달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제어 : 번역 학술어, 조어, 기존 어휘소, 영향, 대체

I. 서론

근대 학문 형성과 지식의 유통 과정에서 학술 개념어의 형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근대 학술 개념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1880년대 전후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조사시찰단 보고서나 『한성순보』, 『이언』 등의 자료에는 각종 근대 학술 용어가 빈번히 등장하며, 일부 용어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석을 붙이기도 하였다.

근대의 학술 개념어 형성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중국의 경우 1860년대 실용지식전파회가 만들어지고, 각종 중국어판 교회 신문이나 번역 서양서가 등장하고, 1868년 강남 제조총국의 번역관이 설립되면서 다수의 서양 서적을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본격적인 번역 문제가 등장했고, 일본에서도 1840년대의 난학(蘭學)이나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 서적의 번역에 따른 번역어 문제가 대두되었다. 새로운 개념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학술어를 만들거나 인접 국가에서 번역한 학술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근대의 지식 계몽 담론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자 번역 학술어는 서구 지식의 유통 확대에 따라 중국과 일본, 한국이 공통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근대의 번역 한자 학술어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비교적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다. 예를 들어 이현미(2012)의 『번역의 정치학:

대한제국기 혁명 개념 연구』(서울대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윤영도(2005)의 『중국 근대 초기 서학 번역 연구: 만국공법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연세대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등의 학위 논문이나, 양세욱(2013)의 ‘근대 이행기 중국의 자국어 인식’, 진력위(2015)의 ‘근대 동아시아의 언어교섭에 의한 한자어의 의미 변화’, 권보드래(2001)의 ‘번역어의 성립과 근대’, 김동기(2003)의 ‘일본의 근대와 번역’ 등의 논문은 근대 학술어 형성 과정에서 번역어가 갖는 의미를 고려한 논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중일 삼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특정 한자 학술어에 대한 연구 성과도 비교적 다수 축적되었는데, 김태진(2017)의 ‘근대 일본과 중국의 ‘society’ 번역’, 이행훈(2013)의 ‘번역된 “철학” 개념의 수용과 전유’, 이현창(2008)의 ‘Political economy와 Economics의 개념과 번역’, 최재목(2005)의 ‘近代期翻譯語 “自由” 概念의 成立과 中國 流入에 대하여’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근대 학술어와 관련한 김재현(2012)의 『한성순보』, 『한성주보』, 『서유견문』에 나타난 “철학” 개념에 대한 연구, 박혜진(2013)의 ‘개화기 한국 자료에 나타난 신개념(新概念) 용어(用語) “민주(民主)”와 “공화(共和)” -수용과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한상철(2012)의 ‘근대 초기 지식인들의 “문명-서양” 인식 -번역어 “天演”과 “進化”를 중심으로-’, 한정은(2015)의 ‘근대 개화기 번역의 세 가지 경로에 관한 고찰’ 등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일본의 근대 번역어와 관련한, 최경옥(2013)의 ‘메이지기, 번역 한자어의 성립과 한국 수용 고찰: [-ism]이 [-주의(主義)]로 번역되기까지’, 김종섭(2014)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어 어휘 의미 변화에 대한 고찰: ‘權利’의 번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근대 번역 학술어에 대한 김태진(2016)의 ‘Organism’의 번역- 옌푸의 유기체론 수용과 ‘신체관의 충돌’-, 양세욱(2017)의 ‘근대 중국의 개념어 번역과 ‘격의(格義)’에 대한 비교 연구’, 양일모(2010)의 ‘번역과 개념으로 본 중국의 근대성-‘유신’과 ‘혁

명'을 중심으로 등도 근대 번역 학술어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근대 학술어 번역과 수용에 대한 다수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근대의 번역 학술어 생성 및 수용 과정에 대한 문제가 체계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더욱이 근대의 서구 지식 수용 과정에서 새로운 개념을 한자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나 수용 과정상의 특징 등에 대한 논의는 선행 연구에서도 많이 다루어진 주제가 아니다. 특히 근대 한국 지식장에 등장하는 중국인 번역의 한자 학술어는 현재의 독자들에게 생소한 느낌을 줄 경우도 있지만, 신개념어로서의 학술어 생성 원리 및 수용 과정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근대 한국 학문 담론에서는 번역어 문제나 번역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었는 데, 중국과 일본의 경우 번역 방법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먼저 『역서사략』, 『청의보』, 『신민총보』, 주상부의 『신명사훈찬』 등에 나타난 번역 학술어(또는 신명사)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 이러한 번역 용어가 근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데 목표를 둔다.

Ⅱ. 근대 중국에서의 역법(譯法)과 언어

서양 지식이 중국어로 번역 저술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마테오리치(利瑪竇)의 『서양기법(西洋記法)』, 『기하원본(幾何原本)』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 다수의 한역(漢譯) 서양서가 등장하였으나¹⁾, 본격적인 중국

1) 郭建佑 撰(2007), 『明清譯書書目之研究』, 天主教輔仁大學 圖書資訊學系 碩士班 碩士論文.

어 서양 번역서가 저작 유통된 시점은 1860년대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정은 『격치휘편』 1880년 6월호의 ‘강남제조총국 번역서서 사략(江南製造總局 翻譯西書事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²⁾, 이 사략은 ‘제1장 논원류(論源流)’, ‘제2장 논증서지법(論證書之法)’, ‘제3장 논역서지익(論譯書之益)’ 및 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미정·김경남(2017)에 따르면 사략 가운데 제2장은 역서와 번역 방법에 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서양인이 중국에서 처음 격치서를 번역할 때, 그 명목에 유의하여 서로 뜻이 같은 것을 사용한 연후에야 가히 타당하고 다시 고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이나 “무릇 처음 새로운 명사가 나타나면 곧 주석을 한 뒤 다시 나타나면 주석하지 않는다.”라는 설명 등은 역법(譯法)과 관련한 대표적인 논의에 해당한다.

『역서사략』에 등장하는 ‘신명목(新名目)’은 새로운 학문과 관련한 번역 학술어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중국의 경우 1860년대 이후 번역 학술어 생성과 관련한 관심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강미정·김경남(2017)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해 제조총국 번역관에서는 ‘중국에 이미 존재하는 명사를 사용하는 방법’, ‘새로운 명사를 만들어 해결하는 방법’, ‘중국과 서양의 자휘(字彙)를 만들어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

그러나 중국에서도 번역 방법이나 새로운 학술어 사용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지식을 보급하는 과정

2) 『격치휘편』 1880.6.~8. 이 사략은 단행본으로 출간되기도 하였다. 『격치휘편』과 『역서사략』은 모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3) 강미정·김경남(2017), 근대개항기 한국에서의 중국 번역 서학서 수용 양상과 의의, 『동악어문학』 71, 동악어문학회, pp.253-288, 허재영(2017), 근대 중국의 서양서 번역 보급과 한국 근대 학문에 미친 영향 연구, 『한민족어문학』 76, 한민족어문학회, pp.67-103.

에서 번역 방법이나 언어 사용과 관련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만국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번역 관련 자료들이다.

(1) 『만국공보』 소재 번역 문제

ㄱ. 격치서원 제1차 기록(格致書院 第一次 記錄)

自西一千八百七十四年 三月起 一千八百七十五年 九月止 自西文譯出. 設立書院之源流並原意 上海與各口所有中外之人 固皆知其大略然 恐後日或致遺忘 或有悞會 故擬此第一次記錄 首述其原意與源流. 上海設立書院供華人之用其意數年前已有之 並有新聞紙論及之 惟初創此議勸人說法興此事者係英領事麥在一千八百七十四年 三月初五日 字林新報內言之 因華人考究各種西學 年進一年 故宜將成此美意而引之 入室則設此格致書院爲最合宜之事 所有章程十五條開列如左. 擬設書院規條. (中略) 九. 院內備有各省現時 及續增所刊新聞 並有西人所譯西國經史子集 各種書卷 漢文著作至中國各種書籍聽憑董事 增列入院 又設天球地球 並各項機器奇巧圖式俾衆便覽. (下略) - 『만국공보』 1875년 10월 9일 제8년 357권.

(번역) 서력 1874년 3월에 시작하여 1875년 9월에 이르기까지 서양 문자로 역출하였다. 서원 설립의 시작과 본뜻은 상해와 각 항구의 중국과 외국인이 진실로 모두 그 대략을 알고 후일 혹은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 두렵고, 혹은 서로 잘못 이해하는 일이 있을까 걱정하여 이로써 제1차로 그 원래 의미와 원류를 기록한다. 상해에 서원을 설립하여 중국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고자 한 것은 이미 수년 전이며 아울러 신문지에서 이를 논급하였는데, 오직 처음 이 논의에서는 사람들에게 설법을 흥하게 하는 일이었다. 이 일에 관계한 사람은 영국 영사 맥(麥, 매드허스트, Walter Henry Medhurst)인데, 1874년 3월 초5일 <자림신보(字林新報)>에서 이를 언급했고, 이로 인해 중국인이 각종 서학을 연구하였으며, 일 년이 지나 마땅히 이 좋은 뜻을 이어 서실(書室)을 만들고자 하여 격치서원을 설립하니 가장 마땅한 일이었다. 15조로 된 장정을 갖고 있으나 다음과 같다. (중략) 구. 원내 각 성의 현재 또는 계속 증가하는 신문을 비치하고 아울러 서양인이 번역한 서양 각국의 경사자집 등

각종 서적과 한문으로 저작된 서적을 비치하며, 중국 각종 서적은 동사(董事)를 초빙하여 점차 원내 두고, 또한 친구와 지구 및 각항의 기기 기교 도식을 설치하여 인민이 편히 볼 수 있도록 한다. (하략)

ㄴ. 논 영학초계(論 英學初階)

自泰西諸國 訂約通商 而後世之講求洋務者 紛然起 亦惟講求洋務 而世之肄習西文者 紛然起 且惟肄習西文 而世之譯印西籍 以裨初學者 又紛然起. 然譯註行世之書 可謂林立 而善本卒少 今之所謂善本者 其李芳春 先生手纂『英學初階』乎. 余嘗讀其書 而喟然曰 我國家宣風重譯 文軌大同 各友邦測海 來王梯航 拱集規既宏乎. 無外道益著乎交隣. 故自中外和好以來各國 仕商率皆肄習西國文字語言 以裨交涉之用大 而公使行人小 而商估傭販在 在皆有所裨誠時務之要術也. - 『만국공보』 1880.03.06. 제12년 579권.

(번역) 태서 제국과 통상 약정을 한 후 세상이 양무(洋務)를 강구하는 일이 분연히 일어났다. 또한 양무를 강구하면서 서양 문자를 공부하는 일이 분연히 생겨났으며, 또한 서양 문자를 공부하면서 서양 서적을 역술 간행하는 일로 초학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일이 분연히 일어났다. 그런데 역주하여 세상에 나도는 책이 가히 수폴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좋은 책은 드문데, 지금 선본(좋은 책) 중에 가히 이방춘 선생이 편찬한 『영학초계』와 같은 것이 있겠는가. 나는 일찍이 이 책을 읽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우리 국가가 마땅히 중역하는 풍토로 문장의 궤적은 대체로 비슷하나 각 우방이 측해(測海)하고 배로 왕래하는 규칙을 수집한 것이 이미 굉장하다. 저서로 교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러므로 중국이 외국과 화약(和約)한 이래 상인들이 솔선하여 서국 문자와 언어를 배워 교섭하는 데 보탬이 되는 일이 크다. 그러나 공사(公使)로 행하는 사람은 드물며 오히려 상인들이 판매자를 고용하는 데 두니, 진실로 시무의 중요한 술책이 될 것이다.

이 두 자료는 1880년대 중국에서의 서양서 번역 실태와 문제점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들이다. ㄱ에서는 ‘격치서원(格致書院)’을 설립하는 목적이 서학 연구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으며, 각종 도서를 비치하여

서학과 중국 학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근본적으로 번역상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격치서원의 활동은 1887년 이후 광학회(廣學會)로 이어진다. ㄴ에서는 이방춘이라는 사람이 『영학초계(英學初階)』를 지은 뜻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1880년대 중국의 영어 학습 실태와 서학의 중국어 번역 실태가 나타난다. 이 또한 중국에서의 서양서 번역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890년대 중국의 대표적인 서양서 번역 사례는 광학회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국공보』 1892년 6월 토머스 리처드(李提摩太)의 ‘광학회계(廣學會啓)’를 비롯하여 1894년 1월 ‘광학회 제6년 기략(廣學會 第六年 紀略)’ 등에서는 1887년 창설된 광학회가 중국 부흥의 다섯 가지 사업(교섭, 상고, 화물 운송법, 격치학, 행선 등의 실효)이 지속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만국공보』에 지속적으로 광고한 ‘광학회 서목’을 참고하면, 1907년까지 광학회에서 발행한 역저 신서(譯著新書)는 대략 264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1907년 8월 제224책의 서목을 참고하면 ‘도학(道學, 종교서)’ 98종, ‘천문학’ 5종, ‘지리학’ 11종, ‘정학(政學)’ 22종, ‘이학(理學)’ 6종, ‘사학(史學)’ 31종, ‘전기(傳記)’ 22종, ‘이재학(理財學)’ 8종, ‘율학(律學)’ 7종, ‘농학(農學)’ 2종, ‘의학(醫學)’ 3종, ‘산학(算學)’ 1종, ‘몽학(蒙學)’ 8종, ‘문학(文學)’ 4종, ‘격치학(格致學)’ 11종, ‘전학(電學)’ 2종, ‘설부(說部)’ 4종, ‘보(報)’ 3종, ‘도화(圖畫)’ 6종 등이다.

이 서목에서 주목할 것은 분류에 사용한 학술어인데 ‘도학, 천문학, 지리학, 정학, 이학, 사학, 이재학’ 등과 같은 용어는 이 시기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학술 신어라는 점이다. 이러한 학술 신어는 『역서사략』에서 언급한 ‘중국에 이미 존재하는 명사’를 기반으로 만든 신명사로 볼 수 있는데, 한자의 축자적 의미를 살려 단음절로 표현한 명사가 많은 것이 특징이

다. 이 점에서 중국에서 만든 새로운 학술어는 일본식 학술어와 다른 점이 있다. 그럼에도 중국인 스스로 어떻게 번역 학술어를 만들 것인가를 심층적으로 논의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아쉬운 점에 속한다.

Ⅲ. 『청의보』와 『신민총보』의 학술어 논쟁

재일 중국인 유학생들이 만든 『청의보』와 『신민총보』에는 중국의 번역 학술어에 대한 흥미로운 자료가 나타난다.

(2) 論 學日本文之益, 哀時客

哀時客既旅日本數月 肄日本之文 讀日本之書. 疇昔所未見之籍. 紛觸於目. 疇昔所未窮之理. 騰躍於腦. 如幽室見日. 枯腹得酒. 沾沾自喜. 而不敢自私. 乃大聲疾呼. 以告同志曰. 我國人之有志新學者. 蓋亦學日本文哉. 日本自維新三十年來. 廣求智識於寰宇. 其所譯所著有用之書. 不下數千種. 而尤詳於政治學. 資生學『即理財學 日本謂之經濟學』智學『日本謂之哲學』羣學『日本謂之社會學』等. 吾中國之治西學者固微矣. 其譯出各書 偏重於兵學藝學. 而政治資生等本原之學. 幾無一書焉. 夫兵學藝學等專門之學. 非舍棄百學而習之. 不能名家. 卽學成矣. (下略) -『清議報』第十號(1899.2.21.)

(번역) 애시객이 일찍이 일본을 여행한 지 수개월에 일본문을 익혀 일본 서적을 읽으니, 옛날 보지 못했던 서적이 눈에 분분히 띄이고 옛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두뇌에 들어와 깊은 방안에서 해를 보는 것과 같았다. 고픈 배에 술을 부어 점점 스스로 기뻐하며 감히 사사로 하지 않고 이에 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동지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으로 새로운 학문에 뜻을 둔 자는 모두 일본문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은 유신 30년래로 세계에서 널리 지식을 구하여 그 번역하여 사용하는 책이 수천 종을 넘으니 더욱 정치학과 자생학(곧 이재학, 일본은 경제학이라고 부른다), 지학(일본은 철학이라고

부른다), 군학(일본은 사회학이라고 부른다) 등이 상세하다. 우리 중국에서는 서학을 배우는 자가 진실로 미미하다. 그 역출 서적은 병학과 예학에 편중되었으며, 정치학, 자생학(경제학) 등의 본원의 학문은 어찌 한 권의 책도 없는가. 대저 병학과 예학 등의 전문학은 모든 학문을 버리고 배우지 않을 수 없으며 명가가 아니면 학문을 이루기 어렵다.

이 논설은 ‘애시객’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량치차오⁴⁾의 논설로, 중국과 일본의 번역 학술어 사용의 차이가 잘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에서 사용하는 ‘경제학, 철학, 사회학’이라는 용어 대신 ‘자생학, 지학, 군학’이라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 서양서 번역 과정에서 새로운 학술어 생성에 차이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신민총보』의 문답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3) 問答

(一)問 讀貴報 第一號紹介新著 一門原富條下 於英文之political Economy 欲譯爲政術理財學. 比之日本所譯經濟學. 嚴氏所譯計學. 雖似稍確稍賅. 然用四字之名. 未免太冗. 稱述往往不便. 如日本書中 有所謂經濟界 經濟社會 經濟問題等文. 以計字易之固不通. 以政術理財字易之亦不通也. 此學者在中國. 雖無顯門. 但其事爲人生所必需. 隨文明而發達. 吾中國開化數千年. 古籍之中. 豈竟無一名詞足以當此義者. 貴撰述博通羣典. 必有所見. 乞悉心研搜. 定一雅馴之名 以惠末學. 幸甚幸甚(東京 愛讀者)

(一)答 政術理財學之名 冗而不適 誠如尊諭. 惟此名求之古籍. 脗合無間者 實覺甚難. 洪範八政. 一曰食 二曰貨. 班書因採之爲食貨志. 食貨二字 頗賅此學之材料. 然但有其客體 不有其主體. 未能滿意. (中略) 但所謂 Political Economy者 合公團之富 與私人之富言之. 而其注重實在公富. 貨殖則偏於

4) ‘애시객’은 량치차오의 필명으로, 『청의보』 제19책(1899.5.21.)에서는 ‘哀時客 梁啓超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私富. 不含政術之義. 亦非盡富. 史記有平準書. 所言皆朝廷理財之事. 索隱曰「大司農屬官有平準令丞者 以均天下郡國輸斂. 貴則糶之賤則買之. 平賦以相準. 故命曰平準也.」按漢代平準之制 本所以吸集天下財富於京師. 其事非爲人羣全體之利益. 本不足以當 Political Economy之義. 雖然單舉平準二字. 尙不失爲均利宜民之意. 且二字出於史記人人一望而解. 而又不至與他種名詞相混. 然則逕譯之爲平準學(평준학) 似尙不繆.(下略) - 『新民叢報』第三號(1902.2.1.)

(번역) (일)문: 귀 신문을 제1호에 소개한 신저(新著)를 읽으니 전문 분야의 원부조(原富條, 엄씨 원부) 아래 영문 폴리틱얼 이코노미를 '정술 이재학(政術 理財學)'이라고 번역하고자 하였는데, 일본에서 번역한 '경제학'에 비하여 엄씨(엄복)가 번역한 '계학(計學)이 비록 좀더 확실하고 다소 적당해 보이나, 네 자로 이루어진 명사는 용열함을 면하기 어려워, 왕왕 불편하다. 일본의 책 가운데 소위 '경제제', '경제사회', '경제문제' 등이 있는데, '계(計)' 자로 바꾸면 진실로 통하지 않으며 '정술이재'로 바꾸어도 또한 통하지 않는다. 이 학문이 비록 중국에 있고 비록 한 분야를 전단하지 않으나 다만 그 사업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문명과 발달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 중국이 개화한 지 수천 년에 옛날 문헌 가운데 어찌 이에 해당하는 한 명사로 족히 이 뜻을 나타낼 것이 없겠는가마는 귀 신문사는 여러 경전을 널리 살펴 찬술하였으니, 반드시 마음을 다해 연구 탐색하여 우아하고 바른 명사로써 학식이 짧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란다.

(일)답: '정술이재'라는 이름은 용열하여 적합하지 않으나 성의껏 이와 같이 비유한 것인데, 오직 이 명사는 옛날 서적에서 구한 것으로 조금도 차이가 없이 부합하는 것을 실제 찾기가 어렵다. 『홍범』 8정은 첫째가 식(食)이요 둘째가 화(貨)인데, 반서(班書)가 이를 채용하여 '식화지(食貨志)'를 만들었다. '식화'라는 두 자는 자못 이 학문의 재료와 부합한다. 그러나 다만 그 객체만 있을 뿐이고 주체가 없어 그 뜻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 (중략) 소위 Political Economy라는 것은 공적 단체의 부를 합한 것과 개인의 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공적인 부를 주목해야 한다. 화식은 곧 사적인 부에 치우쳐 있어 정술(政術)이라는 뜻을 포함하지 않으니 진정한 부가 아니

다. 『사기』에는 평준서라는 것이 있는데 대개 조정의 이재와 관련된 일들을 말한다. 색은(索隱)이 말하기를 “대사농 속관은 평준령승자로써 천하의 군국을 균등하게 거두어 들인다. 귀하면 그것을 내다 팔고, 천하면 곧 사들이니 부과하는 것을 공평하게 한다. 그러므로 명하여 말하기를 평준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한나라 때 평준의 제도는 본래 천하의 재물을 경사(京師)로 흡입하여 모아들이니 그것이 사람들 전체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본래 Political Economy를 나타내기에 충분하지 않다. 비록 평준(平準) 두 자도 백성들에게 이익을 균등하게 하는 것을 잃지 않는다. 또한 이 두 자는 『사기』에도 나오는데 사람마다 한번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명사를 혼잡하게 쓰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평준학(平準學)’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 문답은 영어 Political Economy를 번역하여 ‘정술 이재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독자의 질문과 이에 대한 신문사 기자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⁵⁾. 독자의 질문에는 ‘이재학’보다 옌푸(嚴復)가 번역하여 사용한 ‘계학(計學)’이라는 용어가 적합한 것이라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자는 ‘정술 이재(政術理財)’가 중국 고문헌에서 사용된 점을 근거로 용어의 적합성을 설명하고, 이와 비슷한 ‘식화(食貨)’가 활동의 객체만 있고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합한 점, 『사기』에 나타나는 ‘평준(平準)’이라는 용어로의 번역 가능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재학’과 ‘평준학’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제8호(1902.5.22.)의 문답에서는 일본인의 번역 ‘경제’라는 말의 적절성과 ‘계학’, ‘평준’ 등의 용어가 갖는 모호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5) Political Economy의 번역 학술어에 대해서는 이현창(2008)의 ‘Political economy와 Economics의 개념과 번역’(『개념과 소통』 1-2, 한림과학원, pp.113-177.)에서 논의된 바 있다.

(4) 問答

(七)問: 經濟學原名 Political Economy 直譯之爲政治節用學. 迨Morsboltt氏而始名爲 Economics. 日本人譯之爲經濟學. 不求其理而驟觀之. 則經濟似與政治混而無別. 夫經者 含政治之義. 濟者寓泉流之旨. 其與斯學本義已極相符. 日本當時之定爲此名 蓋已斟酌審慎 而無遺議者矣. 貴報第三號 乃欲易爲平準學. 夫平準者 誠如嚴氏所謂西京一令. 以名官職. 不足以副斯學. 乃如嚴氏之譯爲計學. 其名則誠雅馴矣. 若謂用之處處而無扞格. 則恐爲賢者自許之太過也. 案Statistics者 亦財政之中 而獨立一學者. 日本人則譯爲統計學. 又曰計學. 今中國之方 與人民出產國用. 皆渺無定稽. 是此學爲中國所宜急講者矣. 今若竟從嚴氏之名 則不知此後 而欲譯Statistics. 其又將以何者而易之. 貴報第七號 而又名曰生計學. 雖生計二字其較嚴氏爲稍善. 然終嫌範圍太小. 而不能以政治理財之意包括於其中. 竊謂泰西近世所新發明事理. 爲我中國曠古所未有者. 不一而足. 若必一一而冠以我中國所固有名辭. 是誠許子之不憚煩矣. 亦恐未必有此吻合者.(下略) (駒場 紅柳生)

(七)答. 平準二字之不安. 鄙人亦自知之. 故既棄去. 計學與Statistics相混. 且單一名詞. 不便於用. 如日本所謂經濟問題 經濟世界 經濟革命 等語. 若易以計問題 計世界 計革命 等. 便覺不詞. (下略)

(칠)문: 경제학의 원래 이름 Political Economy를 직역하여 ‘정치절용학’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Morsboltt이 처음 만든 말로 Economics를 일본인이 직역하여 경제학이라고 한 것이다. 그 이치를 구하지 않고 보건대, 경제는 정치와 뒤섞여 구별이 없는 것 같다. 대저 경(經)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라는 뜻을 포함한다. 제(濟)는 샘이 흐르는 데 살아가는 의미를 갖는 취지로 이 학문의 본질과 매우 부합한다. 일본이 당시 이 이름을 정한 것은 그 뜻을 신중히 살펴 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귀보의 제3호에서는 이를 평준학이라고 바꾸고자 하였다. 대저 평준이라는 것은 확실히 엄씨가 말한 서경일령으로 관직명을 삼은 것이니 이 학문을 나타내기에 부족하다. 이에 엄씨와 같이 계학(計學)이라고 번역하면 그 명사는 진실로 아순(雅馴)하다. 그러나 만약 여러 곳에 이 용어를 사용하면 바로잡을 수 없으니 곧 현자(賢者)가 스스로 큰 잘못을 허용할까 두렵다. 생각건대 Statistics라는 것도 또한 재정의 하나로 독립

된 한 학문이다. 일본인은 이를 번역하여 통계학(統計學)이라고 하였는데 다시 말하면 ‘계학(計學)’이다. 지금 중국의 지방과 인민이 만들어내는 것을 사용하는 데 대개 아득하여 뚜렷이 정해진 것이 없다. 이는 이 학문을 중국에서 마땅히 시급히 강구해야 할 바이다. 지금 만약 엄씨의 명사대로 하면 앞으로 Statistics를 번역하고자 할 때, 장차 어떤 것으로 바꾸어야 할지 알 수 없다. 귀보 제7호에서 또한 말하기를 ‘생계학(生計學)’이라 하였으니 비록 생계라는 두 자는 엄씨와 비교할 때 좀 낫다. 그러나 마침내 그 범위가 좁아지며 이로써 정치 이재라는 뜻을 그 가운데 포괄하기 어렵다. 생각건대 태서의 근세 새로 발명한 이치를 따라 우리 중국에서도 옛날에 없었던 것을 밝히면 하나같지 않고 충분할 것이다. 만약 일일이 중국의 고유명사로 쓰고자 한다면 이는 진실로 후손들이 번잡하여 꺼릴 것이며 또한 입을 다물지 못할까 두렵다.

(칠)답: 평준 두 자는 불안정하다. 나도 또한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 용어를 버린 것이다. 계학과 Statistics가 혼동되는 것은 또한 단일 명사로 사용하기 불편하다. 일본에서 소위 경제문제, 경제세계, 경제혁명 등의 말을 사용하는 것을 바꾸어 계학문제, 계세계, 계혁명 등으로 사용하면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하략)

이 논쟁에서 주목할 사실은 새로운 학술어를 만드는 원칙이다. 질문자의 주장과 같이, 번역 학술어가 기존에 있는 어휘소(語彙素)만을 고집할 경우, ‘평준학’과 같이 학문 본래의 의미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계학(計學)’과 같이 번역 결과 다른 학문(Statistics)과 혼란을 유발하는 용어도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점은 기자의 태도도 동일하다. 이 문답은 제11호(1902.7.5.)의 12번 문답으로 이어진다.

(5) 問答

(十二)問: 讀貴報 第八號於英文 Political Economy 又有譯爲財政二字. 較之日本所譯經濟學. 嚴氏所譯計學. 貴撰述所譯之平準學生計學. 似稍切

實賅括. 然尙嫌範圍太小. 不能以政治理財之意 包括其中. 誠如貴撰述所云 財政者不過經濟學之一部分. 指財政爲經濟. 無異指朝廷爲國家. 是則財政學決不可用明矣. 然則終無一名詞足以定之乎. 鄙意殊謂不然. 夫我中國卽無固有之名詞以冠之. 亦不妨創一新名詞. 如泰西近今有新發明之事理 卽創一新字以名之也. 若必欲以我國古名詞 泰西今事理. 恐亦不能確切無遺憾. 貴撰述學術博通. 苟悉心商榷豈不能定一雅馴之名詞. 以釋羣疑而惠末學. 如不得已則國計學似足賅此學朝廷理財之事. 由是日本所謂經濟家則名爲國計家. 經濟學者則國計學者. 經濟界則國計界. 經濟社會爲國計社會. 經濟問題爲國計問題. 加之各種名詞之上 似尙少窒礙之處. 且國計二字. 義界既清. 吾國文中亦嘗用之. 人人一望卽解. 必無亂人耳目之弊. 用以質之貴撰述. 並當世之高明 尙祈互答而指正焉. (無錫孫開圻)

(十二)答: 經濟不專屬諸國. 國計只賅括財政. 不能及其他. 至如所謂「箇人經濟」, 「家事經濟者」. 皆經濟學中一部分. 以國計統之. 似不合論理. 嚴氏專用一計字. 正以其可兼國計家計等而言耳. 本報微嫌其單詞. 不便於用. 故易以生計. 不得已也.(本社)

(십이) 문: 귀보를 읽으니 제8호에 영문 Political Economy를 또한 ‘재정’ 두 자로 번역하고 일본에서 번역한 ‘경제학’과 엄씨가 번역한 ‘계학’과 비교한 뒤, 귀보는 ‘평준학’, ‘생계학’으로 찬술하였으니 좀 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나, 범위가 좁아져 ‘정치’, ‘이재’의 뜻을 그 속에 포함하기 어렵고, 진실로 귀보의 찬술에서 이끄기를 재정이라는 것은 경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재정을 지칭하여 경제라고 하면 조정을 지칭하여 국가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이는 재정학을 명료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즉 마침내 하나의 명사로 죽히 그것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인가. 어리석은 뜻이지만 그렇지 않다. 대저 우리 중국은 고유명사로 그것을 포괄할 수 없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명사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태서에서 근일 새로운 사리를 발명하면 곧 새로운 글자로서 그에 이름을 붙인다. 만약 우리의 옛 명사로 태서의 현재 사물 이치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정확하고 긴절하지 못할가 두렵다. 귀보는 학술을 널리 통하여 찬술하니, 진실로 상각(商榷)을 다하면 어찌 우아하고 바른 명사를 정하지 못하겠는가. 이로써 사람들의 의문을 풀어주고 학식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부득이하면 ‘국계학’이 조정의 이재(理財)와
 관련된 학문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일본의 소위 경제가는
 곧 국계가로 명명할 수 있고, 경제학자는 곧 국계학자, 경제계는 국계계, 경제
 사회는 국계사회, 경제문제는 국계문제, 이에 더하여 각종 명사 위에 붙이면
 조금도 막힐 것이 없다. 또한 ‘국계(國計)’ 두 자는 의미 경계가 이미 뚜렷하니
우리 중국 문자에서 일찍이 그것을 사용하였으니 사람마다 한 번 보고 곧 이
해할 수 있어, 사람들의 이목을 혼란스럽게 하는 폐단이 없으니 이를 사용하
 여 귀보를 찬술하고 아울러 세상에 그 뜻을 밝히는 것이 어떤지 답을 해 주시
 고 바르게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 (무석손개기)

(십이)답; 경제는 여러 나라에 오로지 쓰이지 않는다. 국계는 다만 재정을
 나타내기에 적합하며 다른 것은 나타낼 수 없다. 소위 『개인경제』, 『가사경제』
 라는 것은 모두 경제의 일부분이다. 국계로 통괄하고자 하면 그 논리에 맞지
 않는다. 엄씨가 ‘계’ 한 자만 사용한 것은 가히 국계와 가계 등을 아울러 바르게
 하고자 했을 따름이다. 본보에서는 그 명사가 한 글자여서 사용하기 불편
 하여 ‘생계’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니 부득이한 것이다. (본사)

12문답은 ‘평준학’과 ‘생계학’이라는 용어에 대한 독자의 비판과 그에 대
 한 해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자의 질문은 ‘생계학’이 ‘계학’보다는 적합하
 나 부득이할 경우 ‘국계학’을 대안으로 제시한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자는
 ‘국계’가 ‘국가 재정’만을 의미하므로, ‘생계’가 적합함을 밝히고 있다⁶⁾.

이러한 논쟁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중국 전통의 고유명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명사’를 사용하는 것의 적합성 문제이다. 『신민총보』는 유학생
 이 중심이 되어 발행한 잡지라는 점에서 근대 중국의 사정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신학문 용어를 정리한 ‘신석명(新釋名)’⁷⁾의 경

6) 『신민총보』의 문답에 등장하는 새로운 학술어는 Political Economy뿐만 아니라 ‘금융’(金融, 제3호 제3문), ‘요소’(要素, 제7호 제6문) 등이 더 있으나, 이 두 용어는 ‘이재학’, ‘평준학’, ‘생계학’ 등에 비해 많은 논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우 ‘Society’를 번역한 ‘군(羣)’, 또는 ‘인군(人羣)’ 대신 ‘사회’라는 용어를 채용할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6) 新釋名

社會: 英 Society, 德 Gesellschaft, 法 Societe (社會學之部) 採譯 日本 建部遜吾 社會學序說 及 教育學術研究會之教育辭書.

社會者 衆人協同生活之有機的 有意的 人格的之渾一體也. 將此定義分析解說如何.

第一. 社會者 二箇以上之人類之協同生活體也. (中略)

第二. 社會者有機體也.(中略)

第三. 社會者有意識者也.(中略)

第四. 社會者人格也.

第五. 社會者渾一體也.(中略)

合此五者則 ‘社會’之正確訓詁. 略可得矣. 間有用動物社會 植物社會諸名 不過假借名詞. 未足爲定語也. 中國於此字無確譯 或譯爲羣 或譯爲人羣. 未足以包舉全義. 今從東譯.

(번역) 사회: 영어 Society, 독일어 Gesellschaft, 프랑스어 Societe (사회학의 부문) 일본 다카베 둔고(建部遜吾)의 『사회학서설(社會學序說)』 및 교육학술연구회(教育學術研究會)의 『교육사서(教育辭書)』에서 발췌하여 번역함.

사회라는 것은 무엇 사람들이 협동생활을 하는 유기적, 유의적, 인격적 혼일체이다. 장차 이 정의를 분석하여 해설한다.

제일. 사회라는 것은 둘 이상의 사람이 협동생활을 하는 단체이다.(중략)

제이. 사회라는 것은 유기체이다.(중략)

7) ‘신석명(新釋名)’은 학문 분과의 정묘함에 따라 생성되는 명사가 많아짐을 고려하여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만든 어휘 자료를 뜻한다. 이 자료는 『신민총보』 제3년 제1호(1904.7.13.)~제2호(1904.7.25.)까지 연재되었으며, 본래 철학류(도덕학, 논리학, 사회학, 교육학), 생계학류, 법률학류, 형이하에 관련된 제과학류로 나누어 수록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연재된 것은 철학류의 ‘사회’, ‘형이상학’, 생계학류의 ‘재화’뿐이다.

제삼. 사회라는 것은 의식이 있는 것이다.(중략)

제사. 사회는 인격이 있다.(중략)

제오. 사회라는 것은 혼일체이다.(중략)

이상 다섯가지는 곧 ‘사회’라는 정확한 뜻의 훈고(訓詁)이니 간략히 이해할 수 있다. 만혹 동물사회, 식물사회 등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나 이는 명사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여 정확한 말이 될 수 없다. 중국에서는 이 문자를 정확히 번역하여 사용하지 않고 혹은 ‘군(羣)’이라고 번역하고, 혹은 ‘인군(人羣)’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므로 전체의 뜻을 포괄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일본의 번역을 따른다.

이 자료에서는 새로운 학술어로서 ‘사회’는 영어 Society, 독일어 Gesellschaft, 프랑스어 Societe 등을 번역한 것으로, ‘사회’라는 용어에는 다섯 가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논증하고, 중국에서 ‘군’ 또는 ‘인군’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나, 다섯 가지 조건을 포괄하기 어려우므로 ‘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번역 한자 학술어 가운데 수용 가능성이 높은 학술어는 고유 어휘소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개념을 좀 더 적합하게 표현한 용어여야 함을 의미한다.

IV. 『신명사훈찬』의 신어(新語)

『신명사훈찬』은 1912년 중국 저장성 향현 사람인 주상부(周商夫)⁸⁾가

8) 주상부의 본명은 주기여(周起予)로 이 시기 중국의 외래어에 관심이 많았던 학자로 알려져 있다. LIN Ming-chang(2013)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신학술어가 급속히 확산된 것은 1898년부터 1919년 사이로 보이는데, 주상부의 『신명사훈찬』은 이 시기 대표적인 신어 자료집이라고 볼 수 있다.

편찬한 신어집으로, 상해 소엽산방(上海 掃葉山房)에서 석인(石印)으로 발행되었다. 이 책의 서문은 다음과 같다.

(7) 新名詞訓纂 序

治外國言語文字學者 起而名詞以興 名詞也者 卽我所謂名物訓詁也. 歲壬寅 余于役江右時 東西譯籍挹註正盛 帑檢所及覺新義 往往從古義 刪鏤出 乃有說文解字新注之葺書成勵一卷. 老友瀏陽劉更生 卽爲之序.

其明年束裝旅里書不果成稿存 他友許十年以來久不省憶矣. 今年得識人和周商夫少年學士也. 出所著新名詞 古注一篇視余. 余受而嚮之 凡新義之原出載籍者 條分縷晰粲郎耐觀間列 按語尤確鑿知編檢棄取大非苟作因勸以訓纂易. 其名愆患問世 又憶余當戊戌己亥之間 以新學甫萌芽筆鉛藍縷急就譯雅一書刻於越中. 甲辰悼亡長物悉棄 鐫家刻木板片亦失忘 如隔世今樂商夫書之成益 自歎余書之 舍旃船唇馬足消鑠心力身世之感. 況際滄桑俛仰愧悼者已. 壬子 十一月 錢唐 允公 唐詠裳 序

(번역) 외국어를 연구하는 학자는, 일반적으로 명사를 가장 먼저 연구하기 시작했다. 명사라는 것은 바로 내가 말하는 각종 사물 이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임인년(1902) 내가 강우(저장성의 지명)에서 근무할 때 동서의 서적을 번역하여 주석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단어의 새로운 뜻이 옛날의 의미를 갖고 닮은 데서 나옴을 깨달으니 이에 『설문해자』에 새로 주석하여 한 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오랜 친구 유양의 유갱생(劉更生)이 서문을 썼다.

그 다음해에 내가 짐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원고가 완성되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은 십년이 지난 후에도 이를 기억하지 않았다. 올해 인화에서 온 주상부를 알게 되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학식을 쌓았다. 주상부는 <신명사>를 저술하여 내게 보여주었다. 내가 그것을 받아 살펴보니, 새로운 뜻의 출처가 조목별로 정리되어 있고 분석을 명료하게 하여 행간이 정제하였다. 말을 살펴보니 더욱 확실하게 편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여 진실로 이로 인해 혼란을 쉽게 함으로써 그 명사를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 또 생각해보니 무술년과 기해년 사이에 새로운 학문에 막 싹트면서 급히 어설

프게 번역하여 한 권의 책을 만들어 월중(越中, 일본 도야마현)에서 판각했다. 갑진년에 각본과 판형을 모두 잃어버려 잊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 지금 주상부의 책을 읽으니 더욱 자탄하였다. 내가 쓴 것을 버리고 붉은 배의 언저리나 말발굽을 잃고 심력을 다한 느낌일 뿐이니, 기를 쫓는 배와 제사용의 육류를 버리고 심력을 다한 느낌을 해소하기 충분하다. 게다가 상전벽해 때 가히 순식간에 안타까움뿐이겠는가. 임자년(1912) 11월 전당인 윤공 당영상 서

이 글에 따르면 당영상은 1902년부터 외국 서적 번역 주석에 필요한 어휘 자료를 수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상부가 저술한 『신명사훈찬』을 보고 서문을 써 판각했다고 한다. 주상부의 훈찬은 ‘정지속(政之屬)’(215개 어휘), ‘학지속(學之屬)’(97개 어휘), ‘어지속(語之屬)’(246개 어휘), ‘물지속(物之屬)’(54개 어휘)로 구성되었는데⁹⁾, 훈찬의 기본 원칙은 ‘신명사의 출처를 조목별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정지속’의 ‘공화’, ‘문명’에 대한 예이다.

(8) 政之屬

어휘항	한국음	원문
共和	공화	【史記 周記】 周公召公二相行政。號曰共和。按共音恭。法也。共和猶云法治。周召共和十四年。是爲年號紀元之始。(사기 주기) 주소공 때 두 재상이 정치를 맡았는데, 이를 일컬어 공화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공(共)은 음이 공(恭)이니 법(法, 본받음)이다. 공화는 법치를 이름과 같다. 주소 공화 14년으로 이는 연호 기원의 시작이 되었다.
文明	문명	【易】 文明以止 人文也。(역경) 문을 밝힘으로 그치니 인문을 말하는 것이다. 【荀子禮論注】 文謂法度也。(순자 예론 주석) 문은 법도를 말하는 것이다. 【賈子道術】 知道者謂之明。(가자도술) 도를 아는 것을 일컬어 명(明)이라고 한다. 【儲光義詩】 文明叶邦選。(저광희시) 문을 밝혀 나라를 조화롭도록 선별한다.

9) LIN Ming-chang(2013: 50-51)에서는 615개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12개임.

이 자료에 따르면 ‘공화’라는 용어는 중국 고전인 『사기』에 나타나는 말로 두 재상이 정치를 맡은 데서 유래한 말이며, ‘문명’이라는 용어는 『역경』을 비롯한 다수의 문헌에서 ‘인문을 밝혀 나라를 조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이처럼 주상부가 ‘신명사’를 훈찬하고자 한 목적은 신명사가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라 중국 고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 데 있는데, 이러한 용어는 『역서사략』의 ‘중국에 이미 존재하는 명목’을 중시하는 번역어 생성 원칙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명사훈찬』에 수록된 612개의 어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동형·동의 형태로 사용되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공화, 문명, 유신, 교육, 통상, 명령, 제도, 권리, 선거’ 등이 이에 해당한다¹⁰⁾. 이는 기존에 존재하는 어휘소를 활용하여 만든 신어가 새로운 어휘 자료를 활용하여 만든 것보다 수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근대 한국의 학술어에 대한 태도

한국 사회에서 근대적 학문 분야와 관련된 용어가 등장하는 시점은 1880년대로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던 조준영이 제출한 『문부성소학목록』¹¹⁾과 1883년 언역한 정관웅의 『이언언해(易言諺解)』 권2의 ‘부론양학(附論洋學)¹²⁾, 『한성

10) 『신명사훈찬』에 등장하는 612개의 어휘를 조사하면, 가운데 현재 한국사회에서 동형·동의로 사용하는 어휘 489개, ‘경기(輕氣, 수소), 원인(元因, 한자 다름), 예당(禮堂), 공재(公財, 공공재)’ 등과 같이 한국사회에서 쓰이지 않는 어휘 99개, ‘악필(蜜筆), 환선(丸船)’과 같이 일본에서 뜻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 어휘 24개의 분포를 보인다.

11) 이 자료는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허동현(2003)에서 영인하여 보급한 바 있다.

순보』의 '태서문학원류고'(제14호, 1884.3.8.) 등을 들 수 있다.

『문부성소할목록』에서는 일본의 '대학 법리문(法理文) 삼학부', '대학 예비문', '대학 의학부' 등에서 일본 대학의 교과과정과 교과서를 소개했는데, 그 가운데 다수의 전문 분야 학술어가 등장한다. 다음을 살펴보자.

(9) 大學 法理文 三學部: 二. 編制 及 教旨

一. 東京大學, 綜法學部, 理學部, 文學部, 醫學部, 而法學部 置法學科, 理學部 置化學科, 數學, 物理學, 星學科, 生物學科, 工學科, 地質學科, 採鑛冶金學科, 文學部 置哲學, 政治學, 理財學科, 和漢文學科, 就各學科 中 專教一科爲旨.

(번역) 일. 동경대학은 종합적으로 법학부, 이학부, 문학부, 의학부가 있으며, 법학부에는 법학과, 이학부에는 화학과, 수학·물리학·성학과, 생물학과, 공학과, 지질학과, 채광야금학과, 문학부에는 철학·정치학·이재학과, 화한문학과를 두고, 각 학과 중 한 과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도록 하였다.

이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1880년대 일본에서는 '법학, 이학, 문학, 의학, 화학, 수학, 물리학, 성학, 생물학, 공학, 지질학, 채광야금학, 철학, 정치학, 이재학, 화한문학' 등의 학문 분야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전문 분야를 나타내는 학술어가 조준영에 의해 소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부성소할목록』에 들어 있는 학술어가 당시 사회에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들 용어는 학술어 번역 과정을 알 수 없으나, 그 당시 일본에서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옮겨왔을 가능성이 높다¹³⁾. 이러한 차원에서

12) 홍윤표 해제(1992), 『이언(언해본·한문본) 합본』, 홍문각.

13) 『문부성소할목록』에 쓰인 한자 학술어의 번역 유래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고찰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이재학(理財學)'의 경우 일본에서는 주로 '경제학(經濟學)'으로 번역 사용하였으며, '이재학'은 중국에서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조준영이 시찰할 당시 동경대학의 학과가 '이재학과'였는지, 아니면 '경제학과'였는지는 좀 더 고증이 필요하다.

『이언언해』의 ‘양학’을 번역한 것도 비슷하다.

(10) 附論洋學

(前略) 鄉塾之上 有郡學院 因在授學 專教 格致, 重學, 史鑑, 歷學, 算法, 他國語言文字 及 藝術所必用之書. (中略) 大學院之掌院 必名望出衆才識兼優者 方應此任. 院中各種書籍 規儀器物無一不備. 一. 經學, 二. 法學, 三. 智學, 四. 醫學.

(언해) 향숙 우히는 군학원(고을의 잇는 학과라)이 이시니 직목을 인하여 학업을 가르치디 격치지학과 중학과 스기와 척력법과 산법이며 타국 언어문 즈와 기에 술수의 반드시 쓸 글을 전주하여 가르치며 (중략) 대학원에 장원 (원 일을 주장하는 관원)은 반드시 명망이 출중하고 직식이 겸비한 재라야 마야호로 이 소임을 담당하고 원중에 온갖 서책이며 제도 규모와 괴물이 하나 토 갖초지 아니미 업스니 하나흔 경서 비호는 학이오, 들흔 법 비호는 학이오, 세흔 기에 비호는 학이오, 네흔 술 비호는 학이니

『이언언해』에서는 한문 원문의 ‘격치, 중학, 사감, 역사, 산법, 타국어언 문자, 예술, 경학, 법학, 지학, 의학’을 ‘격치, 중학, 사기, 책력, 산법, 타국 언어 문자, 기예·술수, 경서 배우는 학, 법 배우는 학, 기예 배우는 학, 술 배우는 학’ 등과 같이 풀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그 당시 지식인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반영한 번역으로 보인다. 여기에 나타난 ‘격치, 중학, 사감, 역사, 산법, 경학, 법학, 지학, 의학’ 등의 학술어는 그 당시 중국과 한국에서 비교적 널리 사용된 용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경서 배우는 학’과 같이 구 구조로 풀이한 것은 전문 학술어 대신 의미를 고려한 번역 방식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14) 허재영(2016), 근대 계몽기 전문 용어의 수용과 생성 과정 연구, 『한말연구』 42, 한말 연구학회, pp.245-271. 이 논문에서도 근대 생물학 용어도 전문 용어가 정착되기 전 구 구조의 번역 형태가 많이 쓰였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근대 지식의 형성 과정에 나타난 전문 학술어는 일본과 중국에서 번역한 한자 학술어를 그대로 음차하는 경우와 구 구조로 번역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번역 방식은 1900년대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주시경(1910)의 우리말 학술 용어 창조의 노력이 있었지만¹⁵⁾, 그 이외의 전문 용어 학술어 만들기에 대한 논의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의 학술 용어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번역하여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번역문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 다음을 살펴보자.

(11) 淸國 志士가 日本文을 先學호즈는 論說을 略記호노라. (抄淸議報)

日本이 維新한지 三十年來에 智識을 實字(환우)에 廣求호야 其 所譯 所著한 有用의 書가 數千種에 不下한디 政治學과 資生學과 智學과 群學 等に 尤精호니 다 民智를 開호고 國基를 強호는 急務라. 吾 中國의 西學을 治호는 者 固微호도다. 其 譯出 各書가 兵學과 藝學에 偏重호고 政治 資生 等 原本의 學에는 一書가 無호니 今 余ㅣ 日로 汲汲히 譯호야 我의 同人을 餉코져 호니 竊想컨디 待譯而讀호면 緩而少호고 學文而讀호면 速而多호지라. 故로 余ㅣ 國人을 普勸호야 日本文을 學호라는 所以라. (下略) -『황성신문』 1899.4.29.

(번역) 일본이 유신한 지 30년 이래 지식을 세계에서 널리 구하여 그 번역한 유용한 책이 수천 종이 넘는데 정치학과 자생학, 지학과 군학 등이 더욱 정묘하니 모두 민지를 개발하고 국가 기초를 부강하게 하는 데 급무이다. 우리 중국은 서학을 배우는 자가 진실로 미미하다. 그 역출한 각 서적이 병학과 예학에 편중되고 정치, 자생 등 원본의 학은 하나의 책도 없으니 지금 내가 날로 급히 번역하여 우리 동지에게 제공하고자 하나 생각건대 번역을 기다려 읽으면 늦고 부족하니, 글을 배워 읽으면 빠르고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15) 이에 대해서는 국어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특히 김민수(1977)의 『주시경연구』(탑출판사) pp.85-86을 참고할 수 있다.

국인(國人)들에게 일본문을 배우라고 권하는 까닭이다. (하락)

이 논설은 『청의보』 제10책(1899.2.21.)에 수록된 애시객(哀時客, 량치차오의 필명)의 ‘논학일본문지익(論學日本文之益)’을 번역한 글이다. 번역 과정에서 사용한 번역 학술어 ‘정치학, 자생학, 지학, 군학’ 등은 중국식 번역 학술어인데, 애시객은 원문¹⁶⁾에서 이들 학술어의 일본 번역어를 대조하였으나, 번역 과정에서는 그것을 생략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근대 한국사회는 ‘자생학, 지학, 군학’ 대신 ‘경제학, 철학, 사회학’ 등이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번역 학술어의 정착은 일본어의 세력이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VI. 결론

이 연구는 근대 중국의 학술 번역어 생성과 수용 태도를 고찰함으로써 이 시기 한국의 학문 형성 과정에 나타난 다양한 번역 학술어의 수용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에서의 서양서 번역은 1860년대 실용지식전파회와 강남 제조총국 번역관의 설립부터

16) 『청의보』 제10책, 1899.2.21. ‘논학일본문지익’. 哀時客既旅日本數月 肄日本文 讀日本之書 疇昔所未見之籍 紛觸於目 疇昔所未窮之理 騰躍於腦 如幽室見日 枯腹得酒 沾沾自喜 而不敢自私 乃大聲疾呼 以告同志曰 我國人之有志新學者 蓋亦學日本文哉 日本自維新三十年來 廣求智識於寰宇 其所譯所著有有用之書 不下數千種 而尤詳於政治學 資生學『即理財學 日本謂之經濟學』 智學『日本謂之哲學』 羣學『日本謂之社會學』等.

17) 허재영(2014), 근대 계몽기 외국어 교육 실태와 일본어 권력 형성 과정 연구, 『동북아 역사논총』 44, 동북아역사재단, pp.315-354.

본격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번역 학술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이러한 고민은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도 나타났으며, 그 결과 근대 지식을 표현하는 다양한 한자 학술어가 산출되었다.

우리나라의 근대 시기에는 중국에서 산출한 한자 학술어와 일본에서 산출한 한자 학술어가 다량으로 유입되었는데, 일본을 통한 지식 유입이 활발해지고 일본어의 세력이 급속히 확장되면서 일본식 학술어가 정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럼에도 한자 학술어가 일본식 한자어인지 아니면 중국식 한자어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 점에서 중국에서 산출된 한자 학술어를 가려내고 그 용어가 한국 근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중국의 근대 학술어 산출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중국에 이미 존재하는 어휘소’를 활용하여 조어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이다. 『역서사략』이나 『청의보』, 『신민총보』, 『신명사훈찬』 등에 나타나는 ‘신명사(새로운 학술어를 포함한 신어)’ 가운데 상당수는 기존의 명사를 활용하여 조어한 것이다. 이러한 용어 가운데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일본에서 조어한 한자어로 대체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기존의 문헌을 검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용어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음은 주목할 현상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근대 한중일 삼국에서 생성되고 수용된 새로운 학술어를 전수 조사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일은 한국 학문 발달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수 조사와 데이터 구축은 비교적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지속적인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초 자료

- 『格致彙編』 1876-882.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萬國公報』 1~60冊, 上海出版社 影印本, 中國.
 『清議報』 1~6, 中華書局 影印本, 中國.
 『新民叢報』 1~14, 中華書局 影印本, 中國.
 周商夫(1912), 『新名詞訓纂』, 掃葉山房 石印, 上海.

2. 논저

- 권보드레, 『번역어의 성립과 근대』, 『문학과 경계』 1-2, 문학과경계사, 2001, pp.380-396.
 김동기, 『일본근대철학의 형성과 번역』, 『시대와 철학』 16,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5, pp.247-277.
 김동기, 『일본의 근대와 번역』, 『시대와 철학』 14-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3, pp.263-290.
 김민수, 『주시경연구』, 탑출판사, 1977.
 김재현, 『『한성순보』, 『한성주보』, 『서유견문』에 나타난 “철학” 개념에 대한 연구 -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개념과소통』 9, 한림과학원, 2012, pp.149-181.
 김중섭,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어 어휘 의미 변화에 대한 고찰: ‘權利’의 번역을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19, 한국언어연구학회, 2014, pp.39-54.
 김태진, 『‘Organism’의 번역: 옌푸의 유기체론 수용과 ‘신체관의 충돌』,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5-2,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6, pp.215-243.
 김태진, 근대 일본과 중국의 ‘society’ 번역 -전통적 개념 속에서의 ‘사회적인 것’의 상상-, 『개념과 소통』 19, 한림과학원, 2017, pp.179-217.
 박혜진, 『개화기 한국 자료에 나타난 신개념(新概念) 용어(用語) “민주(民主)”와 “공화(共和)” -수용과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일본어교육연구』 26, 한국일어교육학회, 2013, pp.29-46.
 양세욱, 『근대 이행기 중국의 자국어 인식』, 『한국학연구』 3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3, pp.93-121.
 양세욱, 『근대 중국의 개념어 번역과 ‘격의(格義)’에 대한 비교 연구』, 『중국문학』 91, 한국중국어문학회, 2017, pp.151-175.
 양일모, 『번역과 개념으로 본 중국의 근대성: ‘유신’과 ‘혁명’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 33, 동양철학회, 2010, pp.173-198.
- 윤영도, 『중국 근대 초기 서학 번역 연구: 만국공법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이행훈, 『번역된 “철학” 개념의 수용과 전유』, 『동양철학연구』 74, 동양철학연구회, 2013, pp.227-258.
- 이현창, 『Political economy와 Economics의 개념과 번역』, 『개념과 소통』 1-2, 한림과학원, 2008, pp.113-177.
- 이현미, 『번역의 정치학: 대한제국기 혁명개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진력위, 『근대 동아시아의 언어교섭에 의한 한자어의 의미 변화』, 『언어사실과 관점』 36,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2015, pp.7-24.
- 최경옥, 『메이저기, 번역한자어의 성립과 한국 수용 고찰: [-ism]이 [-주의(主義)]로 번역되기까지』, 『비교일본학』 28,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13, pp.217-239.
- 최재목, 『近代期翻譯語 “自由” 概念의 成立과 中國 流入에 대하여』, 『남명학연구』 19,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5, pp.385-404.
- 한상철, 『근대 초기 지식인들의 “문명-서양” 인식 -번역어 “天演”과 “進化”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51,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pp.417-437.
- 한정은, 『근대 개화기 번역의 세 가지 경로에 관한 고찰』, 『통역과 번역』 17, 한국통번역학회, 2015, pp.237-256.
- 허동현, 『조사시찰단 관계 자료집』 5, 국학자료원, 2003.
- 허재영, 『근대 계몽기 전문 용어의 수용과 생성 과정 연구』, 『한말연구』 42, 한말연구학회, 2016, pp.245-271.
- 허재영, 『근대 계몽기 지식 유통의 특징과 역설 문헌에 대하여』, 『어문논집』 63, 중앙어문학회, 2015, pp.7-36.
- 허재영, 『근대 중국의 서양서 번역 보급과 한국 근대 학문에 미친 영향 연구』, 『한민족어문학』 76, 한민족어문학회, 2017, pp.7-103.
- 홍운표 해제, 『이언(언해본·한문본) 합본』, 홍문각, 1992.
- LIN Ming-chang, A New Perspective on the Creation of Neologism, Acta Linguistica, Vol3, No1. <http://revije.ff.uni-lj.si/ala/>, 2013.

Abstract

The Translated Technical terms in Chinese and Its Influence to
Korea during the Early Modern Time Period

Heo Jae-young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concept of the translated technical terms as used in China, that were used extensively during the early modern time and its influence on language in the region of Korea. I focused on the attitude of the principal of word-formation which were a new idea and matter during that timeframe.

Many of the newly translated technical terms were made in the existing lexeme in China. For example, SAENGGYEHAK(生計學), JASAENGHAK(資生學, economics), JIHAK(智學, philosophy), GUNHAK(羣學, sociology) were made in existing books already in use in China. Some terms were substituted for other terms made in Japan which were not suitable for new ideas or matters. These translated technical terms were influenced in the language use of early modern Korea. We found out that these terms were used in the Chinese book translations frequently.

Key Word : translated technical term, word-formation, existing lexeme, influence, substitute

허재영

소속 : 단국대 교육학과 부교수 hk플러스 사업 연구 책임자

전자우편 : hjy435@hanmail.net

이 논문은 2018년 01월 19일 투고되어
2018년 03월 0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03월 09일 게재 확정됨.